



국제리뷰

• 실리콘밸리의 혁신 문화와 여성 창업활동

양인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실리콘밸리의 혁신 문화와 여성 창업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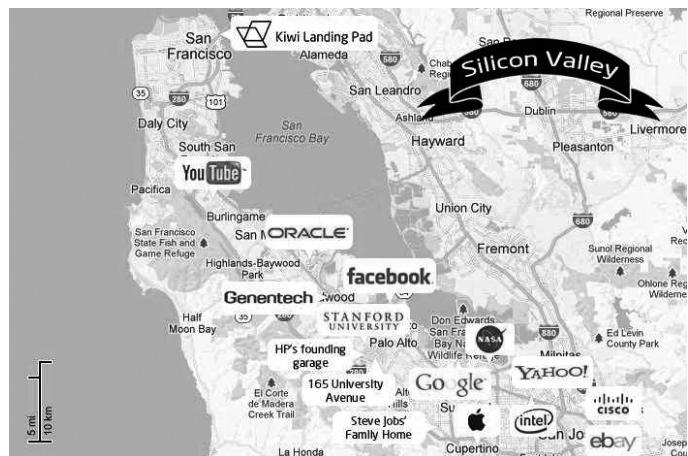
양인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들어가면서

최근 우리 정부는 경제활력과 고용창출의 대안으로 ‘창업’에 주목하고 있다. 창업관련 정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계형 자영업이 포화상태인 우리의 현실에서 창업에 혁신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쏟아지는 수많은 정책적 지원에도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적 아이디어는 나오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2%는 무엇일까’ 그 해답을 실리콘밸리에서 찾아보았다. 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안식년을 보내며 혁신의 아이콘 실리콘밸리의 창업활동을 관찰하였다. 본 고에서는 실리콘밸리의 지속적인 혁신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여성들의 창업활동은 어떠한지 소개하고자 한다.

실리콘밸리의 신화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혁신의 요람으로 창업가(founder)들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해 있고, 본사가 이곳에 없더라도 R&D 센터는 꼭 실리콘밸리에 설립한다. 다양한 지역 및 나라들이 협업과 혁신의 공동체라는 실리콘밸리 신화를 재현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림 1] 실리콘밸리 지역의 대표적 창업 성공기업



지난 50여년 간 성장세를 멈추지 않고 진화해 나가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성공요인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혁신에 가치를 두고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정신을 꼽을 수 있다. 위험 감수라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선호하며,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정직한 실패를 높이 평가한다는 점이다. 둘째,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유능한 엔지니어와 법률, 회계,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넘치는 곳이다. 실리콘밸리는 미국에서도 외국 출신의 고학력 인재가 많은 곳으로, 이공계 분야의 외국 출신 고학력 인재의 비중이 2011년 기준 64%에 달한다¹⁾. 셋째, 실리콘밸리를 움직이는 원동력 중에 하나는 바로 모험 자본(venture capital)이다. 실리콘밸리에는 창업 기업의 수만큼 많은 엔젤 투자자와 VC들이 있다. 미국 전체 VC 투자의 약 41%(2013년 기준)가 실리콘밸리에 집중되어 있다²⁾. 넷째, 산학 협동의 산실인 Stanford와 U.C. Berkeley가 인재의 공급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Stanford의 학생과 연구원들이 발전시킨 기업은 현재까지 6천 여개가 넘는다. 다섯째, 쾌적한 날씨와 주변 환경은 벤처 창업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견디게 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연중 따뜻하며 먼지가 없는 청명한 날씨는 초기 반도체 기업에 최적의 입지 조건이었다. 하루 일과 중 어느 때나 조깅을 할 수 있고 주말에 가족과 함께하는 야외 활동 계획을 날씨로 인해 취소하는 일은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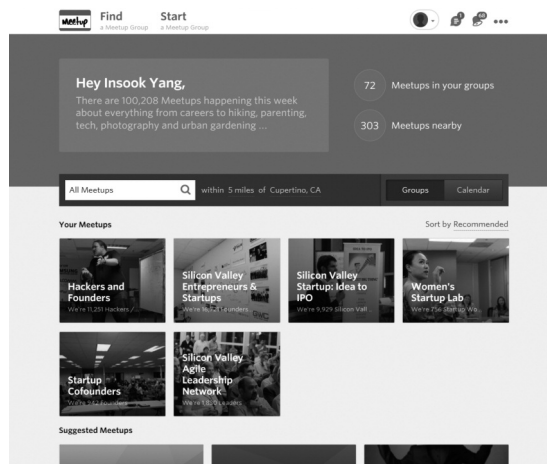
Deborah P. Piscione(2013)는 그녀의 저서인 『실리콘밸리의 비밀』(Secrets of Silicon Valley)에서 실리콘밸리의 신화는 ‘관계를 바탕으로 열정을 증시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서로 돕고 투자하며 실패를 껴안는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지속적 혁신을 추동하는 힘은 자생적인 창업 관련 모임과 이를 지원하는 기업들,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할애하면서 도움을 주는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모여 ‘실리콘밸리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모방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밋업(meetup) 그룹: 스타트업 교육 및 네트워크 형성의 통로

실리콘밸리의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다양한 통로의 창업교육과 네트워크이다. 그 중 실리콘밸리 지역의 밋업(meetup) 그룹³⁾은 스타트업 교육과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는 지역별로 수십 개의 밋업(meetup) 그룹이 조직되어 교육과 네트워크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투자자를 찾는 창업가들, 엔지니어들이 각각의 관심사에 따라 스스로 밋업(meetup) 그룹을 조직하여 교육, 컨설팅, 피치(pitch)에 이르는 크고 작은 행사를 주관한다⁴⁾. 창업 과정에는 단계별 투자유치를 위하여 피치(pitch)가 필수적인데, SVET(Silicon Valley Entrepreneurs) Toastmasters와 같이 피치를 코칭해 주는 밋업 그룹도 있다. 또한 창업관련 무료 온라인 교육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Coursera(www.coursera.org)는 Stanford

대학교 교수들이 만든 사이트로 세계 최고의 대학들과 파트너를 맺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창업활동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소위 인맥은 실리콘밸리에서 더욱 강조되는 요소이다. Stanford 대학을 나오거나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오라클 같은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밋업(meetup) 그룹에 가입하여 여러 행사를 통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기도 한다.



[그림 2] 밋업(meetup) 사이트에 로그인한 화면

실리콘밸리의 여성 창업활동

전 세계적으로 여성 창업이 약 30% 가량인 반면, 실리콘밸리는 이보다 낮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⁵⁾.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기관 중 하나인 Y combinator⁶⁾에서 최근 지원한 스타트업 중 여성 창업가는 24% 정도였다. 다투 존스에 의하면 VC가 투자한 기업 중 6.5%만이 여성 창업기업이었고, 투자 유치를 위한 피치(pitch)에서도 여성 창업가는 남성 창업가보다 투자유치를 받는 비중이 낮고, 받더라도 더 적은 금액이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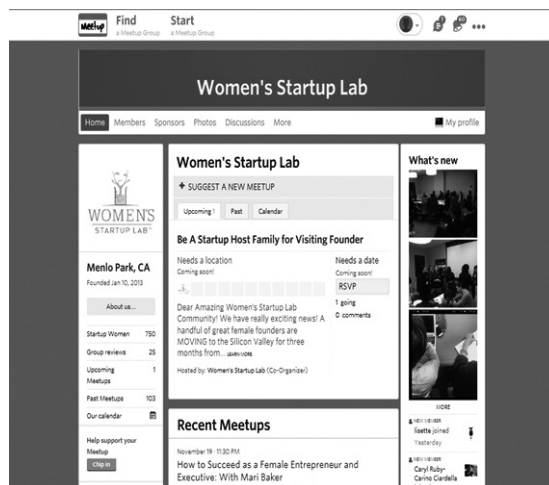
미국에서 다양성(diversity)이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 그것도 전 세계에서 유입된 다양한 인재들이 모인 실리콘밸리에서 여성 창업가들은 여전히 소수자의 차별적 지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실리콘밸리 창업의 대부분이 남성이 지배적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의해 태동되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혁신의 상징인 실리콘밸리 지역에서조차 여성은 창업가(founder)라기 보다는 공동 창업자(co-founder)나 창립 멤버

(founding team player)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Y combinator의 설립자인 Paul Graham은 실리콘밸리에서 여성이 소수자로 받는 불이익을 인정하고, 여성 창업가들을 위한 별도의 투자유치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한다.

실리콘밸리 지역의 여성 창업가들의 모임(meetup) 그룹인 Women's Startup Lab의 회원들을 통하여 여성창업 업종을 살펴보면, 교육, 미디어 등 전통적으로 여성 친화적인 업종이 다수를 이룬다. Women's Startup Lab에서는 주로 수요일과 목요일 점심 시간에, 성공한 여성 창업가들과 창업단계별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강의를 듣고 동시에 여성 창업자간 네트워크를 다질 수 있는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간혹 여성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행사 시간 전후로 네일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기도 한다.



[그림 3] Y combinator의 여성 창업가 컨퍼런스



[그림 4] Women's Startup Lab 행사공지 화면

나오면서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모방하기 어려운 것은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여 남을 돕는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일 관계로 만나는 사람들이 ‘도와줄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말은 형식적인 인사치레가 아니다. 자신이 남을 돕는다면 상대방도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이라는 선행나누기 (pay-it-forward) 문화가 혁신의 실리콘밸리를 유지하는 비밀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통과 배려’의 문화 속에서도 성공한 여성 창업가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드러나는 성차별은 찾아볼 수 없으나 여성들이 주로 창업하는 아이템(업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은 보이지 않는 장벽은 이곳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코트라 실리콘밸리 무역관(2014).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가이드』.

2) 코트라 실리콘밸리 무역관(2014).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가이드』.

3) 온라인 사이트인 www.meetup.com에서 조직된 모임을 일컫는다.

4) 다양한 밋업(meetup) 그룹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교육을 직접 발굴하고 연사를 섭외해서 회원들에게 제공한다. 기업들이 장소나 음료 등을 후원하는 무료 행사도 많으며, 참가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유료 행사인 경우, 인터넷(eventbrite) 상에서 비용결제를 하고 티켓을 출력하거나 휴대폰으로 다운받아서 행사장에 가게 된다. 실리콘밸리에 소재하는 법률(로펌), 회계,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 등에서 밋업 그룹을 조직하는 경우도 많은데, 고객 확보를 위한 회사 홍보나 인큐베이팅을 겸하는 경우이다.

5)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초기단계의 스타트업에게 소규모 투자와 창업보육을 하고 있다. 3개월 간 집중적으로 회사 형태를 갖추도록 도와주고 투자 피치 행사(demo day 등)를 통해 투자자들과의 연계까지 지원한다.

6) Jake Gibson, "Leading the way out of the (Silicon) Valley of 'Gender Inequality'," March 11, 2014, <http://www.entrepreneur.com/article/232090>.

7) Max Chafkin, "The Ugly Truth about Silicon Valley's Diversity Problem", June 2014, <http://www.fastcompany.com/3029444/>.